

“패션쇼에 야시장 더하다” мем취선 상권에 청년 숨결을

청년인소 용봉패션의거리 시장육성사업단 이병운 단장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꿈꾸며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청년 활동가 이병운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후 도시계획과 지역재생을 공부하며 공간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기도 합니다. 현재 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단의 단장으로 있으며, 제10대 광주청년위원회 부위원장과 남구청년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며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시정원시민연합회 사무국장, 시민단체 내 활동가로도 함께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라는 공간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로 생각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상권이나 공간에 청년의 감각을 더해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매력을 느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시장육성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단체 소개도 함께)

△현재 저는 '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서 상점가 활성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상권의 물리적인 사업 운영의 범주를 넘어, '용봉패션의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로컬상권을 지켜나가는 데 의미가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인과 협업한 걷기대회 및 패션쇼 등 축제 기획,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마케팅·브랜딩 작업까지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는 통합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그를 통해 패션의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트렌디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특색 있는 로컬 문화 명소'로 만드는 것이 사업단의 핵심 목표입니다.

청년 감각으로 사람 중심 공간 재생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전 경력이나 경험을 함께)

△대학원에서 재개발, 지역재생, 그리고 대규모 이전지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느꼈던 현장의 갈등을 계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인 기획을 넘어, 실제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인예술시장, 봉선시장에서 문화관광형 프로젝트를 통해 야시장과 축제 등 주요 사업들을 기획했습니다. 대인시장의 웰컴센터 리모델링, ESG 활동, 대인시장 야시장의 내용과 봉선시장의 봉선야시장, 어린이미술제, 어린이장보기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역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며, 문화·예술 그리고 지역 상거래의 시너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무경험과 한국도시정원시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에서의 사무국장 행정

재개발 연구자서 현장 기획자로 상인 마음 열고 거리 활기차게

경험이 쌓여, 지금 용봉패션의거리를 이끄는 사업단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이 일과 활동을 계속하는 동기가 된 에피소드, 활동 과정에서 생겼던 웃픈 에피소드 등)

△현장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 기획자로서 상인분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나 축제를 제안할 때면, 초기에는 낯설어하시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상점의 문을 두드리고 소통하며, 작은 프로젝트부터 성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점차 상인들의 눈빛이 변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 청년들 고생한다"며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시며, 사업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홍보대사가 되어주셨을 때 몽글몽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대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상권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신뢰를 쌓아가고, 침체되었던 거리에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가 채워지는 순간은 제가 이 고된 현장 활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애주기에 맞는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정보들을 청소년 시기부터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서 훌륭한 청년 정책들이 많이 마련돼 있지만, 정책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큼니다.

청년이 되어 필요한 정보를 급하게 찾는 것이 아닌, 청소년 시기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안전망을 인지하게 된다면, 청년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 두려워않는 용기, 청년의 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 개인적인 목표 등 이야기해 주세요)

△단기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용봉패션의거리 상점가'의 성공적인 활성화와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의 안착입니다. 2026년 가을,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용봉패션의거리 일대에서 도란도란 걷기대회 및 기존의 패션쇼에 야시장을 더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직접 걷고 느끼며,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 활동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중인 광주청년위원회 활동과 내년에 목표로 하는 북구 청년네트워크 가입과 활동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또한, 청년 단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넓고 단단한 청년 연대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매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년이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청년이라는 이름이 가진 동료들을 만나고 연대하다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 역시 현장에서 늘 함께 돕고 뛰겠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밖으로 나와 동료들을 만나고 연대하다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 역시 현장에서 늘 함께 돕고 뛰겠습니다.

박민국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장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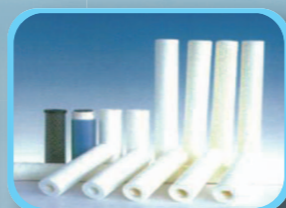
봉선야시장 활성화 사업 활동 당시 모습.



한국도시정원시민연합회 총회 활동.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 용수처리종합계통도 (Water Treatment Flow Chart)
- 정밀 여과장치 (Micro-Filter Housing)
- 백필터 시스템 (Bag-Filter System)
- 자외선 살균장치 (UV Sterilizer)
- R/O장치 (Reverse Osmosis System)
- 방청 방식 장치 (Dispenser)
- 급속 침전 장치 (Clarifier)
- 압력식 여과장치 (Pressure Filter)
- 중력식 여과장치 (Siphon Filter)
- 활성탄 여과장치 (Activated Carbon Filter)
- 경수 연화 장치 (Water Softener)
- 혼상식 순수 제조장치 (Mixed Bed Deionizer)
- 복상식 순수 제조장치 (Two Bed Deionizer)
- 수중의 불순물과 처리방법
- 이온 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
- 활성탄소 (Activated Carbon)
- 대기중 입자 크기별 FILTER 선정
- 인도비교표
- 마이크로 필터 (Micro Filter)
- Air Filter Media
- Air Filter
- Medium Filter
- Hepa Filter
- Filter Bag
- Pocket Bag Filter
- Air Filter의 시험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